

사회갈등 이슈에 대한 방송뉴스보도 비교 연구: 중앙과 지역의 보도 프레임 비교를 중심으로

남종훈*

요약

본 연구는 사회갈등 이슈에 대한 국내 텔레비전 보도 프레임의 매체별 차이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중앙의 언론과 지역의 언론 보도행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이 있었던 2011년 1월 1일부터 백지화가 발표된 2011년 4월 15일까지 보도된 KBS, MBC, SBS 전국방송과 지역방송의 저녁종합뉴스를 비교 분석하였다. 저녁종합뉴스에 대한 프레임 분석은 다시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형식적인 면에서는 전국방송과 지역방송 모두 에피소드식의 사례 나열이나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감정적 접근을 하는 일화적인 프레임이 주를 이루었고 주제적 프레임은 총 13건으로 7.5%에 그쳤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총 174건의 보도 기사를 분석한 결과 입지선정 프레임, 유치경쟁 및 대립·갈등 프레임, 경제성 프레임, 백지화 및 반응 프레임, 정부 대책 및 대안 프레임, 기타 프레임의 6개의 뉴스프레임으로 유형화되었다. 유형화된 프레임별로 뉴스보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국과 지역방송의 보도 프레임이 확연히 구분되었다. 결국 동남권 신공항과 같은 사회갈등 이슈에 대한 매체별 접근 시각은 중앙과 지역, 방송사별 이해관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 Comparative Analysis of Broadcasting News about Social Conflict Issues: Focused on Between Central and Local News Frame

Nam, Chong-Hoon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elevision news constructed an issue of social conflict between nationwide and local broadcasting.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new airport of east-south region in Korea. To do this, this study conducted frame analysis on KBS, MBC, SBS main news including national and local ones, broadcasted from 1 January, 2011 to 15 April, 2011. In addition, frame analysis was divided into two aspects, formal and substance. As a result, the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in formal aspect both national and local broadcastings are dealing with episode style news frames, while subject style is just 7.5%. Second, in substance aspect, 6 categories are founded: site decision frame, competition and conflict frame, economic frame, rescission and response frame, government countermeasure and alternative frame, etc frame. In conclusion, national and local broadcasting television news have different perspective each other on defining an issues of social conflict like east-south new airport.

Keywords : Social conflict issue, News frame, Central News, Local News

※ 제일저자(First Author) : 남종훈

접수일:2011년 09월 16일, 수정일:2011년 11월 24일

완료일:2011년 12월 07일

* 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chnam@cu.ac.kr

▣ 본 연구는 2011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문제제기

최근 다원화 사회의 급진전과 함께 사회적 갈등 또한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시민단체 또는 집단 간의 갈등 그리고 중앙과 지역의 갈등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갈등을 완화시키고 합의점을 찾아 가는 데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언론은 국민들에게 갈등 당사자들의 입장을 공정하게 알리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김동규, 2000).

사회갈등에 대한 언론의 역할은 주로 보도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보도 행위는 그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회문화적 배경과 맥락 그리고 주체 간의 행위관계 등의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프레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조직관행 외에도 미디어 외부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의 제반 환경 요인을 비롯한 사회규범과 가치 등을 포괄한다(김원용·이동훈, 2004). 또한 언론은 사회갈등 상황에서 현실을 그대로 전달하기 보다는 특정 시각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프레임을 통해 전달한다(Pan&Kosicki, 1991; Entman, 1993; 임양준, 2010). 나미수(2004)의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프레임 분석에서도 국책사업의 하나로서 국가적 중대이슈였던 핵폐기장 유치가 뉴스보도에서 다루어질 때는 국가정책적 이슈로 다루어지지 않고, 지역내 집단 간 분쟁이슈로 다루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원용과 이동훈(2004)의 연구에서도 매체별로 사회갈등이슈에 대한 프레임이 달리 규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언론이 사회갈등에 대한 보도 시 어떤 시각의 프레임을 사용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점이다. 언론이 취한 입장과 그에 따른 보도양식에 따라서 뉴스 내용에 대한 수용자의 해석과 이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Gamson, 1992; Iyengar, 1991; Price & Tewksbury, 1995; 남중훈,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올해 대표적 사회갈등 이슈였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한 사회갈등 보도 행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파급력이 큰 텔레비전 뉴스보도에서 어떠한 프레임

을 통해서 사회적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KBS, MBC, SBS와 같은 전국방송과 KBS대구, 대구MBC, TBC대구방송과 같은 지역방송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는지 비교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사회갈등이슈를 텔레비전 방송 뉴스보도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뉴스프레임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국방송 3사와 지역방송 3사의 저녁메인뉴스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된 사안들을 보도함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 다른 뉴스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1: 사회갈등이슈(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방송사별, 전국/지역뉴스별 뉴스프레임의 형식적인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사회갈등이슈(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방송사별, 전국/지역뉴스별 뉴스프레임의 내용적인 특성은 어떠한가?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KBS, MBC, SBS의 저녁 메인 뉴스(KBS 9시 뉴스, MBC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와 KBS대구총국, 대구MBC, TBC대구방송의 저녁 메인 뉴스에서 다루었던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뉴스보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저녁 메인 뉴스는 하루 동안의 뉴스 중 가장 시청율이 높은 각 방송사의 대표적인 뉴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분석대상으로 선택되었다.

분석기간*은 2011년 1월1일에서부터 이슈가 종결된 2011년 4월 15일까지로 잡았다. 분석대상은 방송사 저녁 메인 뉴스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에서 '동남권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 '밀양 신공항' 등의 키워드로 검색된 자료이고, 검색된 자료 중 중복된 자료 또는 이슈와 관련이 없는 자료는 제외하였다.

* 본 연구는 남중훈(2011)의 연구를 보완하였음. 연구의 분석기간을 2011년 1월부터 사안이 종결된 2011년 4월 15일까지로 하고, 형식적프레임 연구를 추가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 정리하였음

4. 연구 결과

4.1 전국/지역 방송사별 뉴스프레임의 형식적 특성

뉴스 보도의 프레임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으나 주로 뉴스를 구성하는 영상적, 텍스트(내용)적, 보도의 방식적인 요소들에 따라 구분하여 이 요소들이 어떻게 프레임을 구성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는 각 방송사별 저녁 메인 뉴스 기사 중 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기사의 구성 방식을 아이엔가(Iyengar, 1991)와 갠슨(Gamson, 1992)의 방식에 따라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으로 구분하였다.

일화적 프레임은 이슈를 특정한 사건이나 에피소드 중심으로 구성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로 다룬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슈를 제시하고 각 사례들을 단순 나열하는 반면 주제적 프레임은 이슈를 사건의 원인과 사회적 배경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맥락의 문제로 다룬다(이미현, 2001). 또한 통계적인 자료 등을 이용하여 이슈를 제시하고 전문가의 의견 등을 인용하여 기사를 전개하는 등 심층적이고 거시적인 구조를 가진다. 그러므로 뉴스를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은 각 방송사의 저녁 뉴스 프로그램이 어떤 사안을 어떻게 구성하여 보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오누리, 2011).

<표1> 방송사별 뉴스프레임의 형식적 특성
단위: 보도건수 (%)

| | KBS9뉴스 | | MBC 뉴스데스크 | | SBS8뉴스 | | 합계 |
|-----|--------------|-------------|--------------|--------------|-------------|--------------|---------------|
| | 전국 뉴스 | 지역 뉴스 | 전국 뉴스 | 지역 뉴스 | SBS 8 뉴스 | TBC 프라임뉴스 | |
| 일화적 | 19 (90.4) | 20 (100) | 17 (94.4) | 31 (96.8) | 14 (100) | 59 (85.5) | 161 (92.5) |
| 주제적 | 2 (9.6) | 0(0) | 1 (5.6) | 1 (3.2) | 0(0) | 10 (14.5) | 13 (7.5) |
| 합계 | 21 (100) | 20 (100) | 18 (100) | 32 (100) | 14 (100) | 69 (100) | 174 (100) |

<표1>에서 보이듯이 174건의 분석대상 뉴스 보도 중에서 일화적 프레임은 총 161건으로 92.5%를 차지하였고, 주제적 프레임은 총 13건으로 7.5%에 그쳤다. 대부분의 방송사가 신공항 관련 뉴스를 에피소드식의 사례 나열이나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감정적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국방송이나 지역방송이나 모두 비슷했다. 다만 TBC만이 TBC 전체 보도 건수에서 14.5%에 해당하는 10건의 주제적 프레임 뉴스를 다루고 있었다. 10건의 주제적 프레임은 주로 신공항 관련한 통계자료의 분석이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사안의 중요 요인 분석 등 심층적 접근을 하고 있었다.

4.2 전국/지역 방송사별 뉴스프레임 내용 비교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뉴스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도뉴스의 핵심주제어, 즉 키워드를 파악하여 프레임을 구별하였다. 개별 뉴스 보도에서 한 개 이상의 키워드가 발견되는 경우 문맥과 기사 내에서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 혹은 문단의 양을 바탕으로 프레임의 유형을 판별하였다. 키워드는 텍스트에서 가장 두드러진 아이디어로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규정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양정혜, 2001). 이 방법은 특정 이슈에 관련된 개별 뉴스시사를 분석함에 있어 모든 가능한 프레임을 포함시키는데 의미를 둘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이 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프레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임양준, 2010)

따라서 총 174건의 보도기사를 분석한 결과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프레임은 입지선정 프레임, 유치경쟁 및 대립·갈등 프레임, 경제성 프레임, 백지화 및 반응 프레임, 정부대책 및 대안 프레임, 기타 프레임의 6개의 뉴스프레임으로 유형화되었다.

<표2> 방송사별 뉴스 프레임 내용적 특성
단위: 보도건수(%)

| | KBS 9뉴스 | | MBC뉴스 데스크 | | SBS8뉴스 | | 합계 |
|---------------|--------------|-----------|-------------|-------------|-------------|--------------|--------------|
| | 전국 뉴스 | 지역 뉴스 | 전국 뉴스 | 지역 뉴스 | SBS 8 뉴스 | TBC 프라임 | |
| 입지 선정 | 3 (14.2) | 8 (40) | 0 (0) | 4 (12.5) | 0 (0) | 15 (21.7) | 30 (17.2) |
| 유치 경쟁 및 대립/갈등 | 1 (4) | 6 (30) | 2 (11.1) | 6 (18.7) | 1 (7.1) | 18 (26) | 34 (19.5) |
| 경제성 | 2 (9.5) | 0 (0) | 3 (16.6) | 0 (0) | 0 (0) | 3 (4.3) | 8 (4.5) |
| 백지화 및 반응 | 4 (19) | 5 (25) | 5 (27.7) | 16 (50) | 7 (50) | 21 (30.4) | 58 (33.3) |
| 정부 대책 및 대안 | 10 (47.6) | 1 (5) | 5 (27.7) | 1 (3.1) | 5 (35.7) | 1 (1.4) | 23 (13.2) |
| 기타 | 1 (4) | 0 (0) | 3 (16.6) | 5 (15.6) | 1 (7.1) | 11 (15.9) | 21 (12) |
| 합계 | 21 | 20 | 18 | 32 | 14 | 69 | 174 |

4.2.1 입지 선정 프레임

입지 선정 프레임은 밀양과 가덕도 두 곳의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평가, 정치권의 반응, 전문가들의 의견, 주민들의 반응 등을 포함한다. 입지선정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동남권 신공항이 왜 필요한지에서부터 신공항 입지로 왜 밀양과 가덕도가 경쟁을 시작했으며, 선정의 평가 항목은 무엇이며, 그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현재 두 곳의 상황은 어떠한지를 다루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이다. KBS만이 3건의 보도를 냈다. 그나마 2건의 뉴스보도는 입지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를 시작했다는 일화성 보도에 그치고 있고, 유일하게 1건의 뉴스만이 입지선정 평가기준에 대해서 주제적으로 심층 보도하고 있다.

“경남 밀양이나, 부산 가덕도나, 오늘부터 동남권 신공항 현장 실사가 시작됐습니다. ‘백지화’ 될 수 있단 얘기도 나오고 있어 두 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KBS9뉴스-전국, 2011.3.24)

“그렇다면 신공항 입지를 선정할 때 어떤 항목이 가장 중요할까요? 또 백지화 얘기는 왜 나오는 걸까요?” (주제적: KBS9뉴스-전국, 2011.3.28)

지역 방송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앙 방송사보다는 보도 건수가 많았다. 특히 KBS대구총국(이하 KBS대구)은 신공항 관련 전체 보도 건수 중에서 입지선정 프레임 뉴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보도량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한 주제적 보도는 없었고, 대부분이 신공항 입지선정에 대한 정재계의 움직임이나 민심, 명칭에 대한 문제제기 등의 지역적인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 대구MBC의 경우도 4건의 입지선정 프레임 보도가 있었으나 주로 입지선정 일정이나 실사단의 동향 등을 소개하는 형식에 머무르고 있다. TBC대구방송은 보도건수에서도 15건으로 가장 많은 보도를 했으며 그 중 1건은 주제적 보도로 신공항의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는 심층적 보도를 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연기설에 대해 정부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 시기를 세 차례나 연기해온 터라 지역주민들의 불신감은 여전합니다.”(KBS9뉴스-지역, 2011.2.10)

“그러나 최종 입지선정이 아니라 ‘입지 평가’ 결과 발표라고만 밝혀 신공항 입지선정이 연기되거나 유보될 것이란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MBC뉴스데스크-지역, 2011.2.10)

“영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작업을 벌일 평가단 풀은 공항 운영과 경제성, 사회 환경 세 개 분야에 모두 165명의 전문가입니다.”(주제적: TBC프라임뉴스-지역, 2011.2.28)

4.2.2 유치경쟁 및 대립·갈등 프레임

유치경쟁 및 대립·갈등 프레임은 신공항 유치를 두고 밀양을 주장한 대구·경북·경남 지역과 가덕도를 주장한 부산의 유치 경쟁에 대한 뉴스 프레임이다. 신공항 유치를 둘러싼 각 지역의 주장과 이를 관찰시키고자하는 정치권, 재계, 전문가,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 및 인터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보도 시기는 프레임의 특성상 신공항 평가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주로 보도가 집

중되어 있었다. 유치경쟁 및 대립·갈등 프레임은 신공항 유치 관련해서 지역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성을 많이 담고 있는 뉴스프레임이다. 따라서 보도 건수에서 신공항 입지 선정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중앙방송사와 지역방송사 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도 횟수 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중앙방송사는 지역 간 유치 현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각 지역의 정치권이나 주민들의 과격한 행동이나 인터뷰 중심으로 지역 간의 대립·갈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고 있다.

“내 고장에 공항 건설...사활 건 지자체”(KBS9시 뉴스-전국, 2011.2.7)
 “동남권 신공항 갈등 증폭...약속 지키나 회피하나”(MBC뉴스데스크-전국, 2011.2.18)
 “신공항 사업...유치쟁탈전 가열...갈라선 영남”(SBS8뉴스-전국, 2011.2.9)

중앙방송사와 달리 지역방송사는 유치경쟁 및 대립·갈등 프레임에서 보도 건수가 백지화 프레임 다음으로 높았다. 지역의 사활을 건 신공항 유치 문제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다. TBC는 보도 횟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서 지역의 다양한 움직임을 빠지지 않고 보도에 할애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방송사의 유치경쟁 및 대립·갈등 프레임 뉴스도 내용적으로는 대부분 각 지역의 자극적 유치 현황을 일화적으로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역 정관계의 뜨거운 관심과 시민들의 열의를 전달하는 데는 기여하였지만 좀 더 이성적인 접근함께 유치경쟁에 대한 논리적이고 심층적인 주제적 보도가 없었음은 아쉬운 점이다.

“신공항 ‘삭발’ 강행” (KBS9시 뉴스-지역, 2011.2.14)
 “4개 시도의회, 신공항밀양유치 국회투쟁나서”(MBC뉴스데스크-지역, 2011.2.7)
 “국회의원, 신공항유치 압박”(TBC프라임뉴스-지역, 2011.2.8)

4.2.3 경제성 프레임

경제성 프레임은 신공항 선정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항목으로 주목받았던 경제성과 관련된 뉴스를 포함한다. 경제성은 결과적으로 신공항

백지화를 뒷받침하는 가장 결정적인 논리로 작용했다.

경제성 프레임의 보도는 KBS와 MBC 전국방송에서 2~3건을 다루고 있고, SBS의 경우는 아예 한건도 다루지 않았다. 이는 경제성 내용이 주로 백지화 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공항 백지화 및 반응 프레임에 상당 부분 중복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백지화 내용 중에서 특히 경제성 부분을 강조한 뉴스는 경제성 프레임으로 분류하였다. KBS와 MBC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런 경제성 등을 고려한 절대 평가에서 가덕도는 38.3점, 밀양은 39.9점을 받아 둘 다 최소 합격선인 5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 지 2단계 비교 평가로 넘어갈 수도 없는... 하지만 평가위원회는 그동안 백지화를 염두에 두고 실사한 건 아니라며 ‘사전 백지화설’을 일축... 결국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4년 3개월 동안 논란만 키우다 없던 얘기로 마무리됐습니다.”(KBS9시 뉴스-전국, 2011.3.30)

“신공항 백지화의 논리적 근거는 경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전에 지어진 지방 공항들은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만년 적자에 애물단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MBC뉴스데스크-전국, 2011.3.28)

지역방송사의 경우는 TBC를 제외하고 KBS대구와 대구MBC는 모두 경제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았다. 경제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애써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외적으로 TBC에서 경제성 및 국익 프레임 3차례 다루었는데 이는 신공항이 충분히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보다 심층적이고 주제적인 접근을 한 보도였다. 보도 횟수가 많진 않지만 신공항을 둘러싼 경제성 논쟁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하려고 시도한 보도였다.

“지난해 말 한국항공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신공항 후보지별 경제성 분석에서는 밀양이 비용대비 편익이 1.05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서울과 수도권 학계를 중심으로 수 차례에 걸친 세미나에서도 이미 경제성은 확인된 주제이니

다.”(TBC프라임뉴스-지역, 2011.3.4)

4.2.4 백지화 및 반응 프레임

백지화 및 반응 프레임은 동남권 신공항 최종 평가결과 전에 흘러나온 백지화에 대한 지역 각계각층의 반응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백지화 확정 이후에 쏟아져 나온 정재계의 반응과 주민들의 반응 등을 포함한다. 신공항 백지화 및 반응에 대해서 중앙의 방송사는 3사가 골고루 3건에서 7건 사이의 보도를 냈다. KBS를 제외하면 MBC, SBS 양사 모두 프레임 내용별 뉴스로는 가장 보도량이 많았다.

백지화 프레임 뉴스는 2011년 3월 27일경부터 최종 실사 결과가 발표된 3월 30일 그리고 이후 약 1주일 정도에 걸쳐서 3사가 모두 뉴스로 다루고 있다. 입지선정에 대한 보도를 MBC와 SBS가 한건도 다루지 않은 것에 비하면 백지화 뉴스는 상대적으로 파장이 큰 중요한 뉴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다 흥미로운 뉴스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방송사는 백지화 결과 및 그에 대한 반응을 다루는 뉴스가 프레임별 뉴스 건수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신공항 선정 관련 뉴스에서 백지화 및 반응 뉴스가 단연 지역의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KBS대구만이 유일하게 백지화 뉴스프레임이 입지선정 프레임이나 유치경쟁 프레임 보다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졌다. KBS대구는 <표2>에서 보이듯이 지역방송으로는 유일하게 신공항 관련 보도량도 낮고 백지화와 같이 핫(hot)한 지역의 이슈에서도 큰 동요 없이 중앙 KBS와 비슷한 보도 유형을 보였다. 보도 내용에서도 주로 정부의 백지화 발표와 그에 따른 지역의 반발, 집단행동이나 규탄대회, 소송, 시위 등의 사회갈등적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동남권 신공항의 경남 밀양 유치를 지지했던 대구.경북과 경남과 울산의 반발도 거셉니다. 정부 결정 철회 투쟁은 물론, 신공항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KBS9시 뉴스-전국, 2011.3.30)

대구MBC와 TBC는 먼저 보도 횟수에서 각각 16회와 21회로 가장 많은 보도량을 보이고 있다. 백지화 발표와 그에 따른 후폭풍을 주로 다룬 점에서는 KBS대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

나 보도의 횟수가 많아서인지 백지화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시각을 담아낼 수 있었고, 백지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입지평가에 대한 꼼꼼한 분석도 일부지만 있었다. 그럼에도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해서 보다 심층적인 기획보도 등이 한 두 차례에 그친 것은 지역 스스로가 신공항 문제를 정치적 논리와 감정적 대응으로 물고 가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탈락 이유가 기준점수 50점을 못넘었다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질 않습니다. 평가의 바탕이 된 2009년 국토연구원 용역결과도 문젠입니다. 당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낸 이 용역은 금융위기 때 나온 것으로 오류투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검증조차 되지 않았습니 다.”(MBC뉴스데스크-지역, 2011.3.30)

“먼저 밀양신공항 유치 실패 원인에 대한 질문에 대구시민들은 수도권 중심 논리에 치우친 정부와 정치권의 지방 홀대라는 대답이 49.2%로 가장 많았고, 지역간 유치경쟁에 눈치를 본 정치적 결정이란 응답이 33.4%, 신공항의 경제성 부족이 17.4%로 나타났습니다.”(TBC프라임뉴스-지역, 2011.3.31)

4.2.5 정부대책 및 대안 프레임

정부대책 및 대안 프레임은 신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한 정부의 입지선정시기와 각종 평가기준 및 백지화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의 대책 및 대안을 포함한다. 정부대책 및 대안 프레임은 중앙방송사와 지역방송사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중앙방송사는 다른 프레임에 비해 이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반면에 지역방송사는 공히 한차례씩만 다루었을 뿐이다. 입지선정 이나 유치경쟁 프레임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며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의 시각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KBS는 10회의 보도 건수를 보여서 전체 방송사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보도량을 보이고 있다. 보도의 내용도 대부분 정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보도 하고 있거나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을 몇 차례에 걸쳐서 다루고 있다. 주로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고, 정치적 판단은 없었다는 정부의 입장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MBC와 SBS도 각각 5차

례에 걸쳐서 정부의 담화문이나 정치권 입장을 보도하고 있다. 3월 31일자 MBC 보도의 경우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다소 억지스럽고, 지역민을 폄하하는 듯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는 전국방송에서 현재의 신공항 이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보인다.

아울러 특이한 점은 세 방송사 모두 박근혜 대표의 발언을 보도하고 있는 점인데 이는 박대표가 가지는 우리사회 영향력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현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 다룸으로써 대립과 갈등이라는 흥미 위주의 보도 행태 때문이기도 하다.

“영남 주민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습니다. 결정이 늦어져 지역간 갈등을 초래한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지나칠 수 없었던 고충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KBS9시 뉴스-전국, 2011.3.30)

“신공항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친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역구에 내려가서 그렇게 말하는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데스크-전국, 2011.4.1)

“이명박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전문가들의 객관적 평가를 고뇌 끝에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SBS8뉴스-전국, 2011.4.1)

지역의 방송사는 각 방송사 모두 1회씩만 정부의 입장 발표를 다루고 있다. 대통령의 담화 발표 또는 대통령의 지역방문 등을 짧게 다루고 있다. 이는 정부의 발표가 일방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고 후속 대책이나 대안이 없어서 지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는 듯한 인상이다. 지역방송이 이번 신공항 관련해서 특이하리만큼 집중적이고 열의적인 보도 태도를 보인 것과 비교해보면 정부 관련 보도는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2.6 기타 프레임

기타 프레임은 신공항 관련해서 다른 프레임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골고루 다루고 있어서 어느 한 프레임으로 분류하기가 애매한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KBS에서 다룬 “긴급점검 국책사업 결정, 자칫하면 적자 허덕”(KBS9시뉴스-전국, 2011.3.30)과 같은 뉴스가 이에 해당된다. KBS의 위의 보도는 이례적으로 신공항 관련 심층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은 경제성 없는 국책사업의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보도 시기가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발표가 있었던 같은 날에 다루고 있어서 자칫 정부의 결과발표에 당위성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MBC는 이번 신공항 백지화를 계기로 대통령 선거 공약 파기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주제적인 기획 보도를 했는데 보도의 내용을 보면 신공항에 대한 내용 보다는 지금까지의 대통령 공약의 일반적인 허상을 보도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역의 방송사는 KBS대구를 제외하고 대구 MBC와 TBC가 각각 5회와 11회의 보도를 했다. 대구MBC는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전에 나온 신공항 무용론에 대해서 사전 검토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TBC는 타 방송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타 프레임 뉴스도 상당히 많은데, 신공항 입지인 밀양에 대한 분석이나 국토 균형개발과 지역공항의 당위성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주문 등 신공항과 관련해서 상당히 다양한 뉴스 아이템을 다루고 있다.

“신공항 국토균형개발 필수”(TBC프라임뉴스-지역, 2011.3.4)

“인터넷 여론 밀양 압도”(TBC프라임뉴스-지역, 2011.3.7)

5.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 갈등 이슈인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서 뉴스 보도가 어떠한 프레임으로 이를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또 전국과 지역 방송사별로 신공항 백지화 이슈를 어떠한 프레임으로 다루고 있는지 비교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뉴스프레임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각 방송사별로 신공항 백지화 이슈에 사용한 프레임의 유형은 무엇이며, 또 내용적

특성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뉴스프레임의 형식 구성을 분석한 결과, 전국과 지역 방송사별로 큰 차이 없이 대부분이 일화적 프레임(92.5%)의 보도를 하고 있었고, 소수의 보도만이 주제적 프레임(7.5%)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과도한 일화적 프레임 뉴스보도는 이슈의 본질 보다는 이슈의 피상적인 갈등양상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사회적 갈등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대립과 혼란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동남권 신공항과 같은 이슈는 특정 지역의 이기주의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과 결정이 필요한 이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냉철하고 논리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하는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고, 언론이 이를 국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제대로 된 여론을 형성하도록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하겠다. 즉 국가정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연구하여 의견수렴과 여론형성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뉴스의 프레임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총 174건의 보도기사의 핵심주제어를 파악하여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뉴스프레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입지선정 프레임, 유치경쟁 및 대립·갈등 프레임, 경제성 프레임, 백지화 및 반응 프레임, 정부대책 및 대안 프레임, 기타 프레임의 6개의 뉴스프레임으로 유형화되었다. 유형화된 프레임별로 전국과 지역방송사의 뉴스보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국방송과 지역방송의 보도 행태가 확연히 구분되었다.

먼저, 전국방송의 경우 백지화 및 반응 프레임(16건)과 정부대책 및 대안 프레임(20건)의 뉴스를 가장 많이 다루었으며, 신공항 입지선정 프레임은 KBS만 3건의 보도를 다루었을 뿐 MBC와 SBS는 한건도 다루지 않았다. 지역방송의 경우에도 백지화 및 반응 프레임은 총 42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 수를 보였고, 이어서 유치경쟁 및 대립·갈등 프레임이 30건으로 두 번째 빈도 수를 보였다. 전국방송과는 대조적으로 정부대책 및 대안 프레임은 KBS대구와 대구MBC, TBC 각 방송사별로 1건씩 모두 3건만을 다루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볼 때 전국방송과 지역방송의 뉴스보도 프레임간의 차이는 명확하다. 전

국방송은 주로 정부의 입장과 발표를 전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백지화가 되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의 보도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 보다 근본적인 입지선정의 과정이나 타당성 또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접근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마치 백지화가 발표되기 이전의 신공항 문제는 특정한 지역의 문제였다가 백지화가 발표된 시점부터는 신공항 문제가 전국적 이슈인 것처럼 다루고 있었다.

지역방송 또한 이번 신공항 백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성적 보도 태도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비록 신공항 백지화 문제가 지역의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지만 자기 지역의 주장만 되풀이 하는 일방적인 메시지의 생산 및 전달은 진정한 지역언론으로서의 역할이 아닐 것이다. 이는 중앙과 지역의 갈등과 대립 국면을 조장해서 지역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큰 박탈감과 현실 회피 의식을 심어줄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뉴스의 프레임을 언어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뉴스가 말 뿐 아니라 이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볼 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드러난 뉴스보도 프레임이 실제로 시청자들의 인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보다 정교한 효과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1] 김동규(2000). 사회갈등에 관한 보도 및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내용분석. 2000년 언론학회 세미나. pp. 53~82
- [2] 김원용·이동훈(2005). “핵폐기장 중심 원자력 관련 보도에 나타난 매체별 갈등보도의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방송학보』, Vol. 19, No.4, pp. 169~213
- [3] 나미수(2004).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가을 통권 26호, pp. 158~335
- [4] 남종훈(2011). “동남권신공항 백지화와 언론의 역할” 『언론정보학연구』 pp.67~88
- [5] 양정혜(2001). 사회갈등과 의미 구성하기. 『한국언론학보』, 45권2호, pp. 248~315
- [6] 오누리(2011). “재해보도에 대한 방송뉴스 프레임 분석: 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에 대한 KBS, MBC, SBS 저녁뉴스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봄철정기 학술대회 발표

- [7] 이미현(2001). “신문기사의 쟁점제기 방식이 독자의 현실 구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8] 임양준(2010). “공공사업 관련 사회적 갈등보도에 대한 뉴스프레임 분석: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010년 봄, 통권 49호, pp. 58~80
- [9] Fowler, R.(1985). Power.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4, T. A. van Dijk(d.), London: Academic Press, pp. 61~82
- [10] Gamson, W., A(1992). *Talking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1] Gitlin, T(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12] Iyengar, S(1991). News Coverage of the Gulf Crisis and Public Opinion: A Study of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Communication Research*. Vol. 20, No. 3. pp. 365-383.
- [13] Pan, Z., & Kosicki, G. M.(1991).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10, pp. 55~75.
- [14] Price, V. & Tewksbury, D(1995). News Values and Public Opinion: A Process: How Political Advertising and TV News Prime Viewers to Think about Issues and Candidates. In F. Biocca(Ed.), *Television and Political Advertising*. pp. 265- 309. NJ: Lawrence Erlbaum.
- [15]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Reality*. New York: Free Press.



남 종 훈

1991년 : 성균관대학교 학사
 1994년 : Ohio University(Telecom
 munications M.A)
 2007년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1994년~2000년: LG미디어, LG텔레콤
 2000년~2001년: BT(British Telecom)
 2000년~2008년: 동신대학교 언론광고학과 교수
 2008년 ~2009년: 한국방송학회 이사
 2010년 ~2011년: 한국언론학회 이사
 2008년~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관심분야 : 디지털방송, 멀티미디어, DMB 등